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선군조선의 빨찌산녀전사들 그리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친 여자축구선수들을 따듯이 맞아주시었다



1 번 에서 계속

드넓은 비행장을 가득 메우고 줄지어 늘 어선 환영군중은 불굴의 정신력과 투지, 높은 기술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고 승전의 개가놀이 돌아온 여자축구선수들을 열광적으로 맞이하였으며 비행장으로부터

평양체육관에 이르는 긴 연도에 펼쳐나온 20여만의 시내근로자들의 환영열기로 수도 평양은 명절처럼 흥성이었다. 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영광을 받아안고 어머니조국의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여자축구선수들은 몸소 자기들의 경기 전 과정을 보아주시고

여러차례 축하전문도 보내주시면서 백두의 담력과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경기장을 누벼온 그 날들을 되새기며 복받치는 걱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국제무대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체육인들은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과시한 개선장군들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비행장에까지 나오셔서 직접 맞이해주시며 각별한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고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체육조선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었기에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은 앞으로도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억척같이 다진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총괄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우리로 끊임없이 출발을칠것이며 찬란군민을 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승리의 금메달들을 더 많이 안아올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각하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조직명도하신 무장투쟁에 의하여 조선이 일본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된 70돐에 즈음하여 수리아아랍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진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훌륭한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관계를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더욱 강화해나가기에 우리의 의지를 확인합니다. 원수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5년 8월 9일

디마스끄

조선해방 70돐,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영웅적조선인민의 조국해방 70돐 경축 슬로벤스꼬준비위원회가 7월 28일 브라체슬라바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슬로벤스꼬주체사상지지협회 위원장 이반 드라클슬레르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의 현명성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단마르크준비위원회가 4일 피엔하븐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단마르크의 공산당 지도부성원 련딩 야

콜렌과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조선의 뜻깊은 날들에 즈음하여 경축모임,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조선해방 70돐 및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필리핀준비위원회가 7월 16일 마닐라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필리핀연대성원회 위원장 라파엘 마리아 노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뜻깊은 날들을 맞으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의 투쟁사를 소개하는 행사들과 조

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철폐와 남조선강점 미군의 철수,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수도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과 대학들에서 조직진행하기로 하였다.

*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경축 준비위원회가 6일 이슬란드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슬란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선문화협회 서기장 존 아르니 할드르손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조선의 뜻깊은 날들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축하편지를 올리며 경축모임,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퐁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명도자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5》를 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경기대회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맞으며 진행되었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이번 경기대회를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조직한 목적은 전군이 전승세대의 영웅적투쟁정신과 본래를 굳건히 이어 받아 침략의 원흉인 미제와 친미세대에 환장이 되어 동족대결, 체제대결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괴뢰패당을 총대 거어이 총결산하고야 말 필적의 투지에 넘쳐 훈련현명을 더욱 새차게 일으켜나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신문들인 《모스콥스키

폼스콜레즈》, 《폼스콜스카야 브라우다》, 《아르구멘타 이 파피》, 《아르구멘타 네벨리》, 《노바야 가제파》, 《즈베즈다TV방송》, 《펜트르TV방송》, 무쓰까야 슬루주바 노보스페이 방송, 인터넷신문 《브즈글라드. 루》, 인터넷통신들인 《웨스썬. 루》, 《메그. 드니. 루》, 무쓰까야 팔라네라, 인터넷TV 《미르 24》, 만마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미국의 UPI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쿠바의 브렌사 라피나통신과 신문 《그라마》,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뉴스통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 찾으신 소식을 전하였다. 쿠바의 통신, 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도 보도하였다. 세네갈신문 《레 보발레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참석하시어 축하연설을 하신 소식을, 네팔신문 《아르판》은 새로 건설한 신전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로씨야, 만마, 네팔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 *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3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화국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뉴스통신들은, 도이힐란드판체연단 인터넷뉴스통신 《현지지도소식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공연에 관람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라오스통신, 세네갈신문 《레 보발레르》, 기네 국내, 국제방송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

국위원회, 민주공화국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뉴스통신들은, 도이힐란드판체연단 인터넷뉴스통신 《현지지도소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양로원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민주공화국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민군정치연구소 인터넷뉴스통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5》를 지도하신 소식을, 네팔신문 《아르판》, 프랑스조선인민군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 62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 찾으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민주공화국, 도이힐란드, 라오스, 영국, 네팔, 프랑스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을 담은 사진문헌들과 동영상들을 모시었다.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에서는 토론회와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에티오피아 베델병원에서는 좌담회가 3일에 진행되었다. 3일 전 시회 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우리 나라 도서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일심단결로 승리할것은 내 조국》이 상영되었다.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

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오는 8월 15일은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날이다. 70년전 바로 이날에 조선인민은 민족재생의 날을 맞이하였고 사회주의조선의 새 력사가 시작되었다. 조선을 감집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는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조선인민들의 유구한 역사를 말살하려고 획책하였으며 저어 조선사람의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미처

달뻗었다. 그 시기 민족재생의 은인으로 떠오르신분이 바로 김일성주석 이시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조선해방의 뜻을 품고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제의 힘으로 무장투쟁을 벌려 민족해방위업을 성취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이 없는 속에서도 독창적인 전략과 명활무쌍한 유격전으로 세계 제패를 꿈꾸던 강대한 일제를 타승

하고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시었다. 조선인민은 수십년간에 걸치는 망국노의 수난을 끝장내고 민족재생의 새날을 맞이하였으며 해마다 8월 15일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에티오피아 베델병원 부원장은 김일성주석은 장구한 기간 항일무장투쟁을 벌려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시였으며 미제를 무찌르고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 세계정치원로이시라고 칭송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